

### “불법대로 살때 인류 행복”

#### 법종스님 '우리는 선우' 서 법문



캄보디아 불교 중흥 법종스님이 4월 27일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박광서)를 방문 특별법문을 했다. 이날 법문은 법종스님(우리민족서도돕기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의 질문과 영어·캄보디아어 통역으로 이뤄졌다.

법종스님은 “불교는 인간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은 열반하셨지만 그 말씀은 남아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지까지도 상세히 알려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이 지녀 계율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위해 보시하고, 참선 정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중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모든 국가가 찬탄하고, 그 가르침대로 따른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전쟁과 폭력, 환경파괴와 물질만능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스님은 설명했다.

법종스님은 4월 24일 한국을 방문, 연등축제와 불국법요식 등에 참석했으며 5월1일 캄보디아로 떠났다. <은>

### “불법응용 사회문제 대안제시”

#### 한국불교언론인회 초대회장 신광식씨



“그동안 언론인 불자들의 모임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은 많았으면서도 잘 되지 않았습다. 일이라는게 누군가 나서야 되는 것이라 싶어 그 역할을 제가 하게 된 것이고, 그저 의욕 하나로 추진해왔습다. 언론인 불자들의 많은 협조와 함께 사부대중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5월1일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창립한 한국불교언론인회 초대대회장에 선출된 신광식씨(KBS 보도국 연구위원)는 늦은 출발 만큼 많은 활동을 하셨다는 것으로 취임 인사를 했다.

“무엇보다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각자의 신심을 심화시키는 것이 활동의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손하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신회장은 어느정도 결속이 되면 뜻을 모으고 한목소리를 내는 힘이 길러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언론인불자회의 태동은 지난해 말 각 신문 방송사의 기자 PD 아나운서 등 언론인 불자들이 뜻을 내 밝히고, 때마침 조계종이 여의도에 언론 정치 경제인들의 교류의 장으로 불교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추진이 가속화됐다.

“급변하는 현실과 그 현실이 던지는 수많은 문제들은 언론인불자들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구현하는 대승적이고 대중적인 실행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신회장은 한국불교의 허약한 요소가 불자들의 실행에 대한 자신감 결여와 과거 틀에 얽매어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 하면서 불교언론인회는 올바른 실행방편을 정립하고, 그것이 불교교단 내외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위영란 기자

###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개인모금 총액 681,000원(45명) △한 주 한끼 굶기 975,000원(67명) ●나진 선봉시 북극 어린이 결연 △개인 결연 4,565,380원(49명) △정도포교인 아니꽃다 일요팀 110,000원 정도포교인 청년회·승만회·대불원 서울지부 공동 모금액 534,960원

(4월29일 현재 총 999,415,812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 모내기 하는 통도사 스님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월파)는 4월30일 오전 9시부터 경내 경작지인 장밭에서 모내기 율력을 가졌다.

예년에 비해 보름정도 앞당겨진 이날 모내기 율력에는 방장 월하스님이 직접 나와 대중들을 격려했다. 모내기에는 통도사 주지 월파스님, 포교국장 원천스님, 교무국장 명현스님과 선원 강원 대중스님 50여명이 참석해 1백20 마지기의 논에 모를 심었다.

명현스님은 “경제적 어려움이 닥친 현실에 노동의 참된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승가가 숭신수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 모두가 분발하여 경제적 어려움 극복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도사=천미희 기자

## 교차로

**홍성 가톨릭대서 법문**  
철웅 성전  
암 조실은 12일 대구 효성 가톨릭 대학교에서 ‘무한성의 구현’이란 주제로 강연한다.

**경찰청서 초파일 법요식**  
자우 경  
찰청 경승  
실장(금강사 주지) 스님은 4월30일 경찰청 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불국법요식을 봉행했다.

**법보신문 창간 10돌 행사**  
설조 법보  
신문 발행인(불국사 주지) 스님은 11일 오후6시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법보신문 창간10주년 기념리셉션을 갖는다.

**잠실 고려선원 개원법회**  
영산 잠실  
고려선원장 스님은 3일 프랑스로 부부동 20개국 주한 외국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잠실 고려선원 개원대법회를 봉행했다.

**통교방송에 기금 1억 전달**  
손현수 전  
국불교산악  
인연합회장(불교방송 이사)은 4월24일 불교방송 활성화를 위해 현금 3억원 중 1차로 1억원을 전달했다.

**백운새 새전북 포럼 여성위원 오는 6월 실시되는 무주군 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한다.**  
백씨는 민불련 창립운영위원장이며 불교인권위사무처장인 박강희씨의 부인이다.

**시민들 희망 갖기를...**  
시청앞 연등만든 친철문씨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화사한 연등을 보고 부처님의 가비를 느끼고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 시청앞에 총 높이 8.5m, 폭 6m의 커다란 연등을 두들실 띄운 조각가 친철문씨(한국조형연구소 대표). 친씨가 2개월여 동안 제작한 연등은 108개의 대형 꽃잎 하나하나의 모양과 각도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금방 개화한 듯한 아름다움으로 서울의 밤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속>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혜은 마포경찰서 경승실장(마포사암연합회장) 스님은 4월28일 마포경찰서에서 '98 부처님오신날 기념 및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시민들 희망 갖기를...**  
시청앞 연등만든 친철문씨

### “마음 닦아 깨끗한 사회 구현”

**감사원불자회 초대회장 이금복씨**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회가 청정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일 감사원불자회 창립 법회에서 신회장으로 선출된 이금복씨(60세·감사원 공보관)는 같이 실행하는 법우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불교의 사회화 사회봉사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김원우 기자

### “고국경제에 보탬 됐으면...”

**부산서 모임가진 재일교포 김정자씨**

“고국이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번 중앙위원회 회의를 부산에서 갖기로 한 것입니다.”

재일 대한인국민회 중앙회장 김정자씨는 3백50여명의 회원들과 부산을 방문, 4월28일부터 5월3일까지 중앙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김회장은 당초 회의를 미국에서 가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산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은 고국의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태>

### “부처님 빛 같을 수 있어 감사”

**군법당 화주불모 이지성심보살**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기를 좋은 인연 만나서 빛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수가 없습니다.”

4월24일 3사관학교 군법당 기공식에서 ‘군법당의 불모’로 통하는 이지성심보살(71세·심우회원)은 연신 눈물을 쏟으며 자신이 화주가되어 부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해준 모든분들께 감사했다.

이번 3사관학교 군법당에 삼존불과 후불탱화를 화주한 이보살은 12사단 총불사 9사단 군법당 건립불사와 장병들에게 수많은 합장주도 보시해왔다. <원>

### 결손가정 아이들의 참된 벗

**어린이날 복지장관상 홍자운법사**

“앞으로도 지역 보육원 원생들과 결손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충북 해운보육원에서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청주 관음사 홍자운(34) 상임법사. 4년전부터 어려운 청소년들을 돌보겠다는 원력을 세워 충북 해운보육원에 대한 자혜원 등의 후원이자 법사로서 생일법회나 수련회, 성지순례를 지원하고 후원자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보육원생들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법사는 “장학복지재단을 설립,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법사연합회를 통해 법사가 필요한 곳에서 포교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0431)56-6254 (재)

# 지리산 대화엄사 개금불사 모연문

● 개금불사기간 : 2542년 1월 1일 ~ 5월 31일  
● 회향일시 : 2542년 6월 10일

### ◆ 개금불사예산액 ◆

법당명	부처님명	크기	소요예산액
대웅전	비로자나불	9.3자	21,000,000
	노사나불	9.0자	19,500,000
	석가모니불	8.5자	17,400,000
각황전	석가모니불	12.0자	37,000,000
	아미타불	10.5자	27,000,000
	다보여래	10.5자	27,000,000
	관세음보살	9.7자	18,000,000
	보현보살	9.7자	18,000,000
	문수보살	9.7자	18,000,000
명부전	지장보살	5.0자	6,000,000
	관세음보살	4.0자	5,000,000
원통전	계	12위	231,900,000

\* 전체 7회 웃질 개금

■ 재무실 ☎(0664)782-0015, 원주실 782-0016  
■ 종무소 782-7600 FAX 782-7601  
· 은행온라인 : 광주은행 734-127-000740 (화엄사)

